



10면

로젠, 완주에 물류터미널 건립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음 2월 15일) 제39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민주 윤리감찰·경찰 수사 대상된 김 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돈봉투 전달 논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작년 11월 촬영된 CCTV 영상서 김 지사 청년들에게 현금 건네는 장면 담겨져
김 지사 “대리기사비 청년들에게 지급 후 곧바로 회수 지사... 오해 해소할 것”
민주 “제보 있어 윤리감찰단 긴급 감찰 지사”... 전북경찰청, 고발장 접수받아

최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둘러싼 금품 제공 및 주거 문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감찰 지사와 전북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정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에는 김 지사가 전북 지역 민주당 청년 당원과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식사를 함께한 뒤,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20여명의 청년들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당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동시에 해당 사건은 전북경찰청

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지급된 금액은 자신과 식사를 하러 원거리에 온 사람들에 대한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총 88만원이 있으며, 지급 직후 부적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수를 지시했고 다음 날 전액을 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제기한 자신의 주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전세와 월세 계약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주해 왔으며, 임대차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갑사위 원회와 인사혁신처 검증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파장은 적지 않다. 당초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김 지사의 민주당 윤리위 감찰

결과와 전북경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경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 지사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연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회견 시작 약 30여분을 앞두고 돌연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이후 안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회를 통해 “김 지사와의 정책연대는 유효하며 오는 4일까지 상황 추이를 지켜본 뒤 도지사 경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이 도지사 경선에 도전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평가다.
김 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의 윤리감찰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보다 도정의 안정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태권도원 중심
세계화 전략 추진

도,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도는 국가유산청, 태권도진흥재단과 협력해 지난달 31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태권도의 전통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전북을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추진이다.
이번 등재 신청은 국가유산청이 총괄하고 전북자치도와 태권도진흥재단이 협력해 추진됐으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영상자료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태권도는 도장을 중심으로 기술과 규범, 수련 가치가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공동체 문화로 사범과 수련생 간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유대와 교류 체계가 핵심 가치로 평가된다.
도는 그간 태권도의 무형유산적 기반을 꾸준히 구축해왔다. 2016년 ‘전북겨루기태권도’를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데 이어, 국기원 및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월 국가유산청 인류무형유산 등재 대상에 선정되며 이번 신청으로 이어졌다.
현재 등재 절차는 국가유산청이 총괄하고, 무주 태권도원에 위치한 태권도진흥재단이 실무를 맡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도는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 ITF와의 공동 또는 확장 등재 논의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등재 여부는 북한과의 협의 방식 및 유네스코 심의 절차에 따라 공동 등재는 이르면 2026년 말, 확장 등재는 2027년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기초단체장 후보 3차 공천 결과 발표

전북선 정읍시장 김민영·고창군수 유기상·익산시장 임형택
군산시장 이주현 등 4명... 장수군수는 김갑수·장영수 경선

조국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 지형 변화를 겨냥한 3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경쟁과 변화’의 정치 실현을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일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기초단체장 후보 3차 공천 명단을 공개하고, 이번 인선을 단순한 후보 선정을 넘어 ‘전북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정치의 긴장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승후 공천관리위원장은 발표에서 “그동안 전북 정치는 경쟁보다 관성, 변화보다 반복이 지배해왔다”며 “이번 공천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가 지역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기준

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의 삶을 이해하며 결과가 증명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공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에서는 정읍·고창·익산·군산 등 4개 지역에서 단수 추천이 이뤄졌고, 장수군수는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정읍시장 후보로는 김민영 예비후보가 나섰었다. 김 후보는 최연소 산림조합장으로 18년간 조직을 이끌며 ‘구질초 축제를 전국적 행사로 성장시킨 민생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고창군수 후보로는 유기상 예비후보가 선정됐다. 9급 공무원에서 출발해 중앙과 광역 기초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익산시장 후보로는 임형택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보권 확대에

합서는 생활정치인으로, 지역 변화에 대한 실행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군산시장 후보에는 이주현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소년공 출신으로 전북지방조달청장을 지낸 이력의 전략형 인물로, 지역 산업 재편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책임자로 주목된다.
장수군수 후보는 김갑수·장영수 예비후보 간 경선으로 결정된다. 당은 정책과 비전 실행력을 중심으로 경쟁을 유도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경쟁이 살아야 변화가 시작되고 경제가 작동해야 정치가 바로 선다”며 “전북 정치에 새로운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3차 공천을 계기로 전북 정치 교체의 흐름을 본격화하겠다”며 “부안·임실·남원 등 후속 공천에서도 정책과 비전, 실행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당부

도내 평균 170일분 재고 확보
전주 등 시군 매주 제작·공급

전북특별자치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재기 없이 평소처럼 사용해 달라고 1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평균 종량제 봉투 재고는 약 170일분으로, 28일 점검 당시 150일분보다 사용 가능 일수가 늘어났다. 이는 전주 시와 군산시 등 주요 시군이 종량제 봉투를 매주 제작·공급하면서 전반적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약 305만 매를 제작

중이며 매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군산시도 약 100만 매를 제작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군별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는 매주 차질 없이 제작돼 판매소까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일부 수급 불안 우려와 달리 재고가 충분한 만큼 사재기 없이 평소와 같이 구매해 사용해 달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